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진

종교개혁주일 종교와 전통의 겹데기를 찢고 나온 복음과 말씀의 골수 481년 전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48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을 향하던 마틴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그때로부터 약 146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그의 손에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라는 항의문이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교회 정문에 그 항의문을 붙였다. 로마카톨릭의 케케묵었던 종교적 전통을 부수고 오직 복음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개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로마카톨릭 교회는 과도한 제정적 남용과 성당 건축 등으로 인해 생긴 재정적 적자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명 '속죄명세서'라고 할 수 있는 '면죄부'(죄를 사해 주는 대가)를 신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중매상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 면죄부 발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권위를 전할하는 사기극이요 참합한 악행이었으나 당대 대다수의 사

제들과 신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이것을 발행하고 받는 일을 거둬하고 있었다. 이후 이어지는 논쟁을 통해 루터는 '교향무오설'(교향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의 오류도 들추어내게 되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부터 1940여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481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좌우하고 있는 힘은 종교와 전통인가, 복음과 말씀인가? 보잘 것 없는 경험과 전통을 극대화시켜 자신의 의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상 우리들은 변질된 말씀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몹시 강하다. 또한 무언가 그럴 듯해 보이는 것들을 덧붙이기 좋아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마틴 루터를 움직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과 말씀 안에서 더욱 가벼워진 것을, 더욱 단순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 각자가 말씀만을 순전히 따르는 삶에 자신을 맡김으로 은 교회가 매일 새롭게 개혁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98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11월 15일 찬양예배 후에

해당 성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교육받아야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교 (김진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11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김희주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1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대,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교역자 수련회

26-28일까지

'오직 하나님의 중으로

수요 구역성회, 주간성경공부 정상 진행

금년 후반기 교역자 수련회는 26일(월)부터 28일(수) 오전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된다. 기도와 더불어 진행되는 후반기 계획, 말씀 연구와 교제 등으로 진행될 금년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역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한편 금년 수련회는 수요1부예배 중 진행되는 구역성 영성훈련과 주간성경공부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일(28일) 오전까지만 순서를 진행한다.

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찬양강연대회 중창부문 우승

지난 20일 오후에는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 여성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갈릴리움을 가득 메웠다. 합창 5개팀, 중창 8개팀 등 총 13개 팀이 참가한 금년 찬양대회에서는 우리 교회 부스엘여성중창단이 중창부문에서 우승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김창언 원로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각 단 우승팀인 루디아중창팀과 찬양강교강임구 집사, 호산나찬양대 등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동계 수요2부예배시간 조정

11월 4일부터 오후 7시로

예배위원회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낮이 짧아짐에 따라 수요2부예배 시간을 종전 7시 30분에서 7시로 30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하절기보다 좀더 서둘러 준비하므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영혼을 낚는 어부들

오늘 교회학교 초창전도잔치 중등부는 31일 연합으로 '시찬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는 영혼을 낚는 어부들의 활동으로 분주하다.

이미 수주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온 새 친구 초청잔치, 총동원 전도행사 등이 유아부와 유년부, 중등부와 중등3부 등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등부는 오는 31일(토) 오후에 1, 2, 3부가 연합하여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양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교 회화마다 다음 세대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때,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주요 목표로 결어둔 우리 교회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순수하고 힘있게 자라갈 뿐 아니라, 이때로부터 복을 얻어전도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하겠다.

교정전도회에서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충현을 통해 순천교도소 집회에서 사용할 키보드 기증자를 찾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장철규 집사님(13교구 계산구역) 가정에서 키보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키보드가 재소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부탁드렸던 12인승 봉고차 운전 자원봉사자는 아직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방문하는 순천소년원 사역에 운전봉사로 자원하실 성도께서는 교정전도회나 김재철 목사님(10교구, 교정전도회 지도자)에게로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영성훈련

29일(목) / 11교구 30일(금) / 10교구

11월 기도원 담당 교역자

김동식 목사(17교구 지역)

제6차 성찬식

다움주일 1-5부예배시

금년부터 연 6회 실시기로 했던 성찬식이 다음 주일로 어느새 여섯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식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형식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매 성찬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성도들을 연합하는 온몸을 맞출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6교구 전도초청잔치

이름다운 결실로 마쳐

지난 17일(토) 오후 만나홀에서 진행된 6교구 전도초청잔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330여명의 6교구 식구들과 새가족들이 모여 온례를 개행되었다(6면에 관련내용).



김창인 목사

유다의 죄 (1)

(이사야 30:1-17)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마다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가 부패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백성은 미혹에 빠지고 정치가 부패하면 국민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야 30장에서는 첫째는 죄가 무엇이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이나,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선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패역한 죄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즉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마다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가 부패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백성은 미혹에 빠지고 정치가 부패하면 국민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대한 나라인 앗수르가 북조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남조 유다를 삼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때에 남조 유다는 크게 겁을 집어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남조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북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죄값이라면 남조 유다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위 하면서 정령한 생활로 돌아와 백성을 돌아보고,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한 덩어리로 동적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큰일났다. 지금 앗수르가 우리 유다까지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이제 우리의 사는 길은 애굽과 화친하는 것이다. 애굽은 막강한 마법사가 있으니 그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만 하면 우리는 앗수르에게 정령을 당하지 않겠다. 애굽은 곡식이 많아 배고른 것을 모르는 나라이니 그들과 화친하면 식량을 원조받아서 굶어죽지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애굽에 자신을 금히 보내어 화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된 죄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은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써앗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려던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잠시 어려운 일이 닥칠때 보니까 고개만 살짝하면 남조 애굽과 친해아 살겠는데 하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는데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살겠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더욱 멀리 떠나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패역한 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죄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죄는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허물입니다. 허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로, 죄 중에서 다음으로 가벼운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약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어쫓는다” 식구는 많은데 야단났습니다. 가차 없이 가차 우유를 만들어 파는 것은 양심상으로 도 죄이고 실정법으로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니까 계획적으로 범한다면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아니고 알면서도 약하여 범한 죄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셋째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가차 없이 가차 우유를 만들어 파는 것은 양심상으로 도 죄이고 실정법으로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니까 계획적으로 범한다면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아니고 알면서도 약하여 범한 죄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넷째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가차 없이 가차 우유를 만들어 파는 것은 양심상으로 도 죄이고 실정법으로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니까 계획적으로 범한다면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아니고 알면서도 약하여 범한 죄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다섯째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가차 없이 가차 우유를 만들어 파는 것은 양심상으로 도 죄이고 실정법으로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니까 계획적으로 범한다면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아니고 알면서도 약하여 범한 죄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어느 죄가 제일 많습니까? 모르고 범한 죄보다는 알고 범한 죄가 더 많고 알고도 약하여 범하는 죄보다는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반역하는 패역한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패역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① 계교를 베풀면서 패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풀 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랴...(1, 2절)
유다가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를 점령하라고 입을 벌렸는데 대 ‘이렇게 해야 이 위기를 면하겠는가?’ 하고 계교를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의논하는 자식은 잘못할 수가 있어도 패역하는 자식은 잘못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교인은 비록 실수할 수는 있으나 패역하지는 못합니다.

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② 맹약하며 패역하였습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라”(1, 2절).
맹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신 만만 약속을 하는 자식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약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약속할 때에도 하나님도 부모님도 모르는 약속을 하지 못한 약속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③ 사신을 애굽에 보내어 패역하였습니다.

“...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다”(1, 2절)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에 피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범한 죄가 한없이 많으나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금까지 범한 죄에 죄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배반하고 이제는 세력이 있다는 애굽과 화친하려고 하였으니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졸렬한 외교를 하였다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범하고 배를 맞게 되니까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가서 의논하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두 뜻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4절) ‘소안’은 애굽 동북방에 있는 도시이고 ‘하네스’는 애굽의 나일강 서편에 있는 성입니다. 사신을 한 곳에만 보내는 것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좌우로 나누어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선물을 들러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 사신들이 그 재물을 이룬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애굽 재물 안에 얹고...(16절)
지금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에 구걸행각을 하러 가려고 할 때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서 금요 금어 재물은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은 약대 안에 싣고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평야와 사

막이 때문에 행수가 우글거리고 독사가 많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사신들이 재물과 보물을 잔뜩 싣고 갑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에 당도하여 “우리를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2)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패역한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① 만방에 속욕거리기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 민족이 돌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3, 5절)
유다 백성은 한 나라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과오와 이리저리를 자주 주박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때는 앗수르 왕 디글랴 빌레헬에게 도움을 청하더니(왕하 16:5) 이변에는 앗수르 사람들이 공격을 해 오자 애굽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앗수르의 랍사레스는 유다를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나 ...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찢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왕하 18:19-25, 사 36:4-10)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같이 수치를 당합니다.

②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함이라 일컬었느니라”(7절)
유다가 애굽에 피하려 했던 결과는 헛되었습니다.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함’이라는 말은 애굽이 유다를 도와 줄 마음도, 도와 줄 실효도 없이 유다가 망하는 것이 자기네와 무슨 상관이 있나면서 구경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범피하여 이러한 일을 만난 유다 나라가 살기 위하여 애굽에 많은 보물을 들러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어 보면 물물만 손해를 보았지 한낱으로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던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



김성곤 목사

언약과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9:16, 17)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에 담긴 유언의 의미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유언’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이 유언이란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심으로, 곧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하면 영원한 유산인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정적인 효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 언약

언약의 뜻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유언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냅니다. 먼저 오늘날 본문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희생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0-18절과 에베소서 34장 18절을 읽어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은 후에 희생으로 언약을 확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바, 곧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준비케하신 희생의식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4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제사가 조금 바뀌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로 쪼갬다는 것은 언약을 어진 사람들과 이와 똑같은 일 것이라는 의미 곧,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은 생명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확정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

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도 나를 알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3-25). 이 말씀은 언약의 유언을 만드시기로 실행하신 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써,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동참하여 지켜야 할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 예식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식, 곧 예수님의 삶과 피에 참여하여 구속을 얻는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거듭 확인하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한 하나님

우리는 이와같이 성찬식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떡과 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예식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직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한 기쁨

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제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께서 부락하신 말씀과 제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앞에두고 우리는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려면 이것이 곧 주님의 삶과 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켜진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한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한 들음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그분의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성찬예식에 진정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떡과 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예식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직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제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31:31-34).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언약을 받는 자일 뿐, 그 언약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주도권도 쥐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더 보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루신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불순종을 통해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기리는 성찬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식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분은 위대한 신 창조주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고 명령을 존중하며 그분의 명치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모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성찬예식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유언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명령하셨

선교부서협동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 중

매주 일 아침 10시 선교관 지하2층에서

주 일 아침 10시, 선교관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작은 공간에서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냐고요? 그 모임이 바로 대학부의 선교과 모임입니다.

대학부 해외선교과의 '역사'는 그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대학부 내에서 여러 사역팀 중에 하나로 존재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역이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지체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부 안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교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제시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모여서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5년 가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왔다는 부담이 있어 '세계지도정보'(Operation World)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 3-4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나중에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후속 중보기도모임과 합쳐지고 지금의 '세상이 기도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부내에서 5명의 지체들이 모여 실질적으로 대학부내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동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 선교위원회실에서 모였고 모임의 이름을 'Missions and Me'(선교와 나)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교라는 것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깊고 가깝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미래의 선교 사역 집어창 작재에 일꾼
포기하지 않도록 힘쓰시는 하나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 내용은 매주 대학부 주보에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그 당시는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역마단 기도운동)'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사역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개척자들에게는 언제나 시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96년 가을에 새로운 지체들의 참여에 의해 모임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선교과로 바꾸었고 그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거의

변동없이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선교로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귀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많이 성장해서 곧 새로운 지도자로 세 세워질 것입니다.

대학부 해외선교과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과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2세대라고 본다면 내년 초부터는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3세대들이 대학부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9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나누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라는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선교관이 많이 성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선교한국에서 출간된 '학생 선교운동가 매뉴얼'을 한단원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 열심을 내면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의 다른 사역과 달리 여러 부서와 같이 자주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단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배우기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선교 비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속적인 훈련과 공부를 통해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것이며, 넷째로 최대한으로 우리 대학부내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는 것이며(동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지원되는 선교 프로그램을 최선으로 다해 도우며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한 일을 온전하게 이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중현교회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대학부 해외선교과의 한 지체)

지구 선교위원회에서는 ...

통역, 번역 봉사자를 찾습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 말씀선포 동시통역으로 진행 중
7개국에서 온 6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현재 7개국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스리랑카인 25명, 중국인 15명, 인도네시아인과 몽골인이 각 5-6명, 인도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이 각 3-4명 등 총 60명 정도가 매주일 오전 9시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집회는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성경공부로 구성되어 대개 우리나라 말로 진행된다.

이 중 말씀 선포는 영어, 중국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통역 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집회를 갖고 그 나라 말로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외국인선교부의 오랜 기도제목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 나라별 교사들이 현재 선교 연구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제 미지 않은 남에 외국인 형제, 자매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제사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까지 당분간은 동시통역에 의한 말씀 선포가 계속될 것이다. 통역자는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 주중에 번역을 한다. 스리랑카어, 중국어, 영어는 제법 체계가 잡혔으나 인도네시아어는 아직도 파도기적이며 몽골어, 방글라데시어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형제들은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임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도, 파키스탄 통역 봉사자들이 그 나라말로 통역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 3개어로 동시통역 중(영어·스리랑카어·중국어)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이 회복되길

지난 주일 서울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중국인들을 심방한 한 교사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들은 여름 두 달 동안 대전의 한 공작장에서 노동을 했다. 얼마 전 이들이 받은 두 달 임금은 한 사람당 십만원이었다. 두 달 동안의 막노동 임금이 십만원! 이들이 가진 법적인 약점을 이용해 착취한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임금을 준 사람이 이교도 집사라고 한다.

그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 먹을 것이 없어 으름장을 해야만 하는 것만 같다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만이 왜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왜 더 살기 힘들어지죠? 라고 그들이 심방한 교사에게 질문했을 때 그 교사는 그저 "미안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

10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

작년 이맘때 부회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회장단 후보들이 한달간 새벽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신기 당일 지지 발언을 해주었던 형과 함께 새벽기도를 드렸고 총회때 3차 투표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적으로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가장 잘 알고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부회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되도록 문제 안되도 문제야", "네가 할 수 있겠어?"라는 말들을 들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였음을 알았다. 지금도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이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말도 어눌하고 리더십도 없고 충현교회에 온 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에 충현교회를 잘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고 지식과 능력,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말씀은 약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내가 나를 인도하리라는 것이었다. 나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부회장이 되고 나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나를 짓눌렀다. 신현식 회장이 군문제로 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를 내가 대신 맡아 해야 했다. 또 청년부 내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임원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형제,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형제, 또 IMF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일 등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개입한 양적으로 밀려왔고 시골로 내려갈까 하는 생각, 잠적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 때에 나를 세우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니라"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심

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사역을 마친 지금 뒤를 돌아보면 무거운 짐이 들려져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어린이와도 같은 나였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거둔 것 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이야! 너는 저를 나에게 주고 나는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동행하였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고백한다. 사역을 마치면서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신 감사 제복들을 생각해 본다.

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부족하고 낙한 자를 세우셔서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시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5명의 임원들, 천사 같은 임원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목포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 충현교회 청년1부 임원으로 일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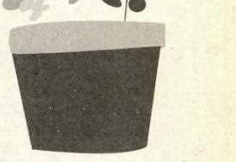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와 청년1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스물여덟해를 살아오면서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하다'

홍 수 정(70쪽)

'감사하다' 이 말은 우리 단기선교팀에서 함께 준비하면서 부족한 것 채워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도와 주셨던 것에 대한 우리들의 표현이었다. 여름단기선교,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각오하고 지냈었다. 그러나 특별한 고생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 관리였다. 청년1부 면회회 임원과 직장, 우리 팀 이 세 가지 모두 소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잘 조개서 할애하느냐가 문제였다. 이 기간을 통해 시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를 체험하게 하였다. 우리 팀은 감사하게도 매우 화합이 잘

되었다. 그 나라의 특성(정착)성 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시를 피하며 최대한 열심히 다하며 그들을 접하였다.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기차로 하루를 이동하였는데 4인 1실의 침대칸이었다. 그곳에는 이중 침대가 두 개 있었다. 그곳에서 그 나라에 경찰인 사람에게 2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으며 머리가 꾸부꾸부 서는 심정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안기 부보다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감시했다. 식당이고 어디고 따라다녔고 숙소 또한 안전지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했었고 특히 우리 조는 007작전을 많이 사용하였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각자 2시간을 개인전도하고 어느 곳으로 भी기로 했다. 그들이 예측할 수 없이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또한 사용하는 말도 조심했다. 사업(전

도, 회의(예배), 사장님(목사님), 회장님(장로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었지만 그때는 심각했고 긴장되는 순간들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활동 했을 때는 3인 1조 5개 조로 활동했다. 그래서 조별로 각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 명 한 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밖을 얻었다. 각 조에 적합한 현지인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금은 편지를 왕래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한다.

이것은 단기로서 끝나는 기를 바라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된다.

그 나라 국민들의 속성상 지속적인 신의가 필요하며 꾸준한 사역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임원일과 단기선교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주셨다. 슬픔이나 아픔, 기쁨들을 함께 나누 수 있는 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작년 부산지역 이전에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활동을 별로 동경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 가까이 살 수 있는 공경함 안에서 가슴 깊게 느낄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하다. 또한 단기선교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생명을 통한 감사

이 윤 진(69쪽)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풍성한 출생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 순간도 주관하셨으리라. 마구간에서 나신 그 분은 불도는 어떤 곳에서 부모가 없는 '사람'과 함께 '조심스런' 출생을 하셨다. 그곳은 차가운 기계도 밝은 불빛도 없고 기계적으로 생명을 받아내는 타인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한 분위기와 탄생의 간절히 기도하는 집중된 생과 축복만이 가득했음을 것이다.

결론한 지 한 달 주 3주된 생명을 입제한 사실을 내 내게 주님은 이와 같은 출산의 순간을 준비하여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임신 5개월이 되도록 차가운 출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마음이 조금은 급해진 나에게 주님은 품어 내내하고 기도하여 한다는 의지를 주셨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적극적인 태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 종합병원, 유명한 산부인과를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상담하고 싶었지만 모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전문의의 노하우를 함부로 무시하는 듯한 제사를 할 수 없었다. 7개월이 되어 집에서 출산하는 방법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를 받아 줄

사람이 없었다. 또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기도 중에 끊임없이 한 병원이 떠올랐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문만나는 시간조사와 애기를 할 수 있었다. 그분을 통해서 아기를 받아 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순간 감사가 베풀어졌고, 바로 이어진 일들을 기도해야 했다. 다음날 그곳을 찾아가 환장임을 보는 순간 태어난 생명을 대한 존중의 마음이 사명감을 냈다.

대리석과 번쩍이는 기계들로 출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한 출생을 할 수 있는 구별된 환경은 확신이 들었다. 출산의 순간은 고통이 함께했지만 웬지 돌을 만촉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비명 없는 조용한 출산이 되었다. 아기는 출생 순간 울지 않았다. 복벽에서 3시간도 못되어 얼마 앞에서 미소를 띠며 보여 주었다.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혼 첫날 태어난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던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에 동참했다. 부족한 것이 결코 귀한 것으로 늘 채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대심원을 밝히시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전 같으면 말도 못꺼냈을텐데 ...

김 국 자(권사, 1교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말을 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뜰 끝에 대심원에 참석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딸도 함께 참석했지요. 목사님 인도로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웬 눈물이 ...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울라했습니다. 찬송 544, 444장을 부르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도 꺼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딸이 커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딸은 미리부터 대심원 받을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혼아름 마리 양보다 있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딸은 몇년을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1부에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때 ‘나 안에 떤 근심 있오라 ...’(찬송 455장)를 부르며 감사드립니다.

웅고집 저의 남편도 교회 직분을 받고 감당하려고 애



불신 가정용 기도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믿음의 유산 물려 주는 부모 되도록 기도

쓰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지요.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기다림 속에서 이제 저의 가정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이제 주일이면 온 식구가 주일예배에 초청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복음화가 첫째’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10시 35분에 자리에 앉아 준비되도록 하고 그날 주일 말씀의 성경 본문을 찾아 놓은 후 3부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장년3부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처음 갔을 때 장안을 공부했는데, 남편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너희들 잠깐 말씀 읽어봐라 이해와 지식이 그 속에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성경통신강좌도 열심히 잘했다고 특별상을 두번씩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이 조급씩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저의 부모가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낮아지며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불신 가정을 기도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초청전지를 마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정 운 환(집사, 6교구)

“내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6교구 전도초청전지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5시 만나눔을 드림에 달구었다. 새신자 51명을 포함 330명이라는 경이로운 참석에 주재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405장)을 시작으로 하여 이종대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롬 5:6-8)이란 주제의 설교는 성령 충만을 메타게 기다리는 성도와 새 신자들에게는 죽음 속에 생명을, 어둠 속에 빛을, 불가늠 속에 가능한, 제한 속에 무제한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였다.

참석 인원 300명 이상을 목표로 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많이 모여 200명이라는 주위의 냉소와 비아냥거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라는 말씀으로 답하셨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매인 한 끼 금식 기도 명단을 작성하여 하루 중 일하는 직업을 한끼씩 금식한 후 다음 담당자에게 바톤을 넘겨 주는 기도가 이어졌다.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도의 열매였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영생하는 양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이 모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이 목사님의 지난 6개월간의 간절한 호소, 임태주 전도사님의 헌신은 전도의 불을 한층 더 지켰다. 뿐만 아니라 주일 식사 준비 관제로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도 교구 식구들의 기도의 합성에 여러고성이 무너져듯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 주는 놀라운 선을 베풀어 주셨다.

휴대용 가스버너가 130여개나 동원되고 음식과 선물이 승용차 3대분을 넘는 분량,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 새벽 시장 경매에서 신선한 과일

을 골라오신 집사님, 말없이 금일봉으로 은혜에 보답하신 권사님,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주방에서 수고하신 전도회원들, 준비한 식사가 모자라 추가로 구입하여 배불리 먹으리라 동봉사주하신 준비간사장님. 33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일목요연하게 지휘하신 예수님의 손길 하나하나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례로 매끄럽게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는지. 황홀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가를 새신자나 교구식구들이 하나같이 모두 체험했기 때문이다.

대형 교회에서 자칫 생길 수도 있는 교인 상호간의 진실된 사랑의 교제의 부재를 감안한다면 이번 초청 전도잔치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뤄지는 사랑의 친교와 전도 방법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금요일 저녁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이 많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금요일 저녁 7시, 찬양집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30분이 남았다. 본당 좌측에는 십여 명의 성도들이 미리와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위 사진). 오늘 저녁 집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기도에는 금요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찬양하는 순서자들, 그리고 앞뒤에서 섬기는 모든 직제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예배나 집회를 앞두고서, 교회나 개인의 일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겸손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성실함의 향기가 있다. 종현의 모든 예배에는 이렇게 미리 나와 기도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있다. 예배는 이들의 간구로 인해 더욱 은혜로워진다.

매주 금요집회가 끝나면 종중절을으로 버스에 올라 기도원으로 향하는 2백여명의 성도들이 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십자가기도를 위해서 피곤한 금요일 밤 달콤한 밤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의 기도는 매주 계속된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땀을 흘려 기도한(아래 사진). 더구나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은 교회와 국가를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와 국가에 임하시길 간구하는 이들은 중보의 용사들이다. 이들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교회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왼쪽)



지체들 소식



백두OP십자탑 봉헌 지난 10월 15일 군전도회원들의 후원으로 건립된 십자탑. 이곳에서 비취지는 십자가의 빛으로 국군 정병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영어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찬송가대회

지난 주일 찬송가부르기대회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몇 주 전부터 찬송을 선포하여 반별로 많은 연습으로 정성스럽게 발표회를 가졌다.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발음도 잘되지 않는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귀한 모습으로 화답하게 하였다. 은혜스런 찬송가부르기대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더욱 감사하다. (송해경 통신원)

유아부 35세 유아를 두신 어머니들께!

새 친구 초청잔치를 오늘 갖습니다. 교사들은 여러 주 동안 전화, 열서를 통해 유아부에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연락 해 왔습니다. 또, 1, 2주째 휴에는 분당 앞에서 풍선을 나눠 주며 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10월 22일)

밤에는 유아부실에 모여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5세 유아를 두신 어머니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오늘, 잃은 양 찾기 초청잔치

오늘 유년부에서는 '잃은 양 찾기' 초청잔치를 해요. 새로 전도받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잘 안아오는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자리일 거예요. 즐거운 찬양과 인형극도 준비하고 있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반길 준비에 유년부실이 무척 분주하죠. 또한 이번 초청잔치를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모두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서 부흥하는 유년부 모습이 될 거예요. (정지은 통신원)

중등부 예수님의 향기로

주말마다 만나는때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새로우신 수다스런 선생님들, 성령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수가 많아진다고 하던가.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무척 걱정하고 계신다. 주일마다 입을 모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지만 아직도 어전하라고 걱정한다. '집사님, 다른 부서 장로님들까지도 걱정이 많으시대요.' '집사님, 그도 걱정한다고 뭘 일이예요?' 그 예들 앞에서는 전혀 모른 채 하십시오.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고 열구라고 폭죽 떨어 뜨리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와 활동이 전파도 하고요.' 황혼 빛을 받으며 멀어져 가는 집사님의 그림자에서는 진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었습다. '집사님, 그렇게 해볼까요!' (서애매통신원)

고등부 방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고등부에서는 방송부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한 학생들은 고등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와 기록을 사진과 비디오 필름으로 촬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원일 선생님의 지도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노하우로 매주일 예배 후 고등부의 13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중구 TV와 VTR 각각 2대씩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김원일 선생님 (구내전화 229, 230)

사랑부 "그는 없었는데 뒤엎네 찬양대"

지난 18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가졌다. 지도 목사님으로부터 예배시간에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 때로의 노래를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2부시간에는 예수님께 구원받아 찬양했던 절친의 마음으로 다양각색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어떤 아이는 땀비린으로, 어떤 아이는 춤을 추면서, 어떤 아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아이는 땅을 보고, 어떤 아이는 앉아서, 어떤 아이는 일어나서 ... 애처럼 울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리라. (정재화 통신원)

6교구 여름 사역 그 이후...

6교구 예수전도회직원들은 지난 10월 20일에 강원도 정선군 신현리교회를 방문하여 헌금을 전달하였다(사건). 신현리교회는 지난 여름 6교구에서 놓여 온전도 사역을 나갔던 사역자이다. 아이 회원들은 농어촌전도 사역 이후의 교회의 근황을 설명하고 점심 대접을 받으며 그곳 교인들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한자와 교회, 특히 농어촌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윤숙 통신원)



15교구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울며 씨를 뿌려 보았는가?

매 뿌리지 않는 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씨뿌려 놓고 땅 흘려 수고하지 않은 자도 결실을 볼 수 없다. 또한 수확의 기쁨은 당연히 땅을 갈 자의 몫이다. 주님 예 제 도를 추수하는 일꾼들이 비옥 하였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 10:2)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울며 씨를 뿌려 보았는가? 교구도 아닌 때 단적인 이 절문은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한숙영 통신원)

중등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중등13부는 오는 31일(토)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시와 찬양의 밤을 마련한다. 시화전, 성경, 합창, 시낭송, 수화전, 심리, 농구, 기적합주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씨름을 잊지않고 선보이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넘치는 천사들의 합창

교회 찾는 외국인들, 교포2세들에게 찬송의 은총 임하도록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화합의 찬양

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서이다. 시온찬양대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리 대원들의 친목을 위한 공식적인 모임보다는 서로서 연락하여 만나는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많다. 그리고 시온찬양대에서 대원으로 봉사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외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한다. 그래서 그 대원이 한국에 다시 오면 영어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드리고요 하고 시온찬양대의 대원 같이 예 목기도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선교의 하나로 보고한다. 우리 부세로 나가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주님을 모르고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인들에게 찬양으로 전한 믿음들을 심어 주는 것 또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의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나라를 찾는 신앙이 돈독한 믿음들에게는 더욱더 신앙을 다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믿음이 없었던 외국인

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그 곳에서 전도하는 기회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어 찬양에 임한다. 지금 시온찬양대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50명 정도 줄어든 인원으로도 좀더 힘있게 찬양하는 것.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낯설고 신앙이 돈독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대원들 서로가 아끼며 돌보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시온찬양대가 되기를 바란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영 야외예배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시온찬양대 (대장 손철 장로, 지휘 이진우 선생, 반주 최복순 선생)는 영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교회 영어예배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찬양대이다. 시온찬양대의 대원들은 대부분이 대학부와 청년부의 회원들로 이루어져지만 장년부에 속하는 회원들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명으로 모두 합쳐 대원들은 약 40명이다. 이들은 영어예배 1시간 전인 8시부터 9시까지 분당 맞은편 중원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에서 찬양 연습을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11시부터 12까지 분당 지하 호산나홀에서 다음 주일 찬양을 준비한다. 토요일 찬양 연습은 가나홀에서 5시부터 7시까지이다.

시온찬양대의 활기찬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서는 편집부와 봉사부, 친교부, 신앙부가 있다. 편집부에서는 적당히 한 번씩 시온찬양대원으로서 알아야 할 소식으로 가득찬 피자를 만든다. 봉사부에서는 이름 그대로 연습이나 모임이 있을 때 봉사하는 부서이고, 친교부는 주로 친교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여 대원들의 하나님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매달 생일을 맞은 대원들을 생기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부는 매주일 아침 연습 전에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하루

교 회 소 식

● 할 일

1. 장학현금 / 오늘 1, II, III, IV, V부에서 드린다.
2. 성전식 안내 / 11월 1일(다종 주일) 1, II, III, IV, V부에서 드린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들은 오시기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

1. 장로 회색회기도회 / 27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필요요회기도회 및 성경공부 / 26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릴로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30호
5. 재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사무국
6. 설립인전도회 / 29일(목) 새벽기도 후, 설립인전도회실
7. 유지재단 이사회 / 27일(화) 18:00, 달빈홀
8. 권사회 제4차 월례회 / 28일(수) 1부예배 후, 사물부실

● 남전전도회

1. 바 줄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 바 줄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 베드루11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4. 오 한 4 / 31일(토) 18:00, 강현구 집사대(536-7098)
5. 오 한 7 / 27일(화) 21:00, 우현기 집사대
6. 오 한14 / 오늘 19:00, 박효상 집사대(6616-5573)

● 결혼

1. 임영숙(전래남 권사의 아들, 제19교구)와 이비연(안익수 성도, 백경숙 권사의 딸, 제4교구) / 27일(화) 12:30 갈릴릴로

●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 응답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안수집사)		수요일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	II
11	1	이강재	손 철	이승철	한승규	전종필	이석영	이명자	윤옥자	한승규
	8	김영수	정정주	김기환	김준권	이정호	박정구	이계문	이순자	한승규
	15	김정현	윤영식	정종수	정종식	김인철	김인철	김정호	이규희	한승규
	22	우기전	박익진	손동운	마성락	김광진	이만기	이영자	이문자	한승규
	29	남진우	이명학	정하우	하태선	송원환	이민식	유재춘	유성자	한승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20	한관석	1	바울		1632	박철만	19	청년1부	김미경(19)	1644	장지현	19	청년1부	신정숙(8)
1621	강명비	4	청년2부	우석영(4)	1633	김윤비	19	청년1부		1645	순현옥	19	청년1부	김명숙(6)
1622	김규섭	5	바울	임윤영(5)	1634	한규정	19	청년1부	이숙영(19)	1646	신승아	19	청년1부	지선화(19)
1623	석하옥	6	소망부		1635	김일현	19	대학부	임정자(6)	1647	장무진	6	청년1부	
1624	전봉호	9	소망부	박윤석(8)	1636	김이요	15	고등부		1648	차상연	6	청년2부	
1625	이기영	11	바울		1637	하일승	19	대학부		1649	염태선	4	대학부	
1626	조석희	12	바울		1638	염 준	19	대학부	백경심(1)	1650	권복희	8	한나	
1627	전계술	15	청년2부		1639	장문수	15	라파라		1651	성재경	8	마리아	
1628	이정화	15	청년2부		1640	홍성진	15	중등부		1652	홍지은	11	대학부	
1629	이경자	16	청년2부	강성호(16)	1641	박석영	19	대학부		1653	권태경	17	중등부	마리아
1630	윤민재	17	에스더	우영희(17)	1642	임부부	19	대학부		1654	장은혜	15		
1631	김진영	17	청년부	우영희(17)	1643	이영하	19	청년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들

“또 기회가 있을까?”

한 숙 경(집사, 15교구)

◆ 구역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이웃집이 철이 아까가 차를 타고 있었다. 순간 인사를 하자 하나,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 엉거주춤해 하였다. 그분이 먼저 알아보고 “이디 다녀오십니까?” 하고 물었다. 얼떨결에 “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게 집으로 오고 있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위로했다. “그래 철이 얼마부터 전도와 나만 철이 아까에게 전하겠지! 또 기회가 있을까?” 그러나 다음날 아침 철이 때문에는 장가(喪家)임을 알리는 등과 철이 아까의 옷이나 있었다.

◆ 딸이기가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같은 또래의 인육이가 아침이면 자주 놀러다. 어느날 딸이 어렸을 때 끼고 있는데 옆에서 말꼬리만 쳐다보고 있길래 “너도 셋거 줄까?” 하니 바삭 다리가 없다. 목에 수건을 두르고 얼굴을 씻기려는데 그 때 “너도 예수님을 전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머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육이를 사랑하고 그 인육이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 사영리의 1원리가 시작되었는데 순간 마음으로는 “이 조그만 아이가 사영리를 알아들을까?” 하며 예수님이 아기를 접어 두었다. 그 며칠 동안 오지 않았는데 아이에 대해 무심히 지낸 7일 후 꼬마 인육이는 3년의 짧은 삶을 마쳤음을 알았다.

◆ 15년 전에 한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분명 성경님을 슬프고 근심하게 하였던 내 불순종이었다. 고백하며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똑같은 불순종을 아직까지도 계속하면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다. “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날마다 나의 옛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소서.”

2. 회 광군(홍승진 집사, 송만자 권사의 아들)과 윤지영(송성철 장로, 김경자 집사의 딸, 제3교구) / 29일(목) 12:00 갈릴릴로
3. 이종훈(구이복 집사, 장봉희 권사의 아들)과 김기연(이성장 집사의 딸, 제12교구) / 29일(목) 13:00 갈릴릴로
4. 이지근과 밀양장신교회원회 국내외신학교부 소속, 제19교구) / 30일(금) 11:00 갈릴릴로
5. 정정호(장종문 성도, 박석진 집사의 아들)과 최수연(장오연에 성도의 딸, 제2교구) / 30일(금) 14:00 갈릴릴로
6. 최철하(최영일 성도, 김대순 집사의 아들, 제19교구)와 김은주(김경봉 목사, 마애순 사모의 딸, 제19교구) / 31일(토) 13:00 갈릴릴로
7. 임기순(임영조 집사, 김경희 집사의 아들, 제17교구)와 김윤정(장기환 목사, 신성 사모의 딸) / 31일(토) 13:00 결혼식 김 박학관 초빙
8. 정원호(정원호 장로, 이정자 권사의 아들)과 이지영(양이훈 장로, 이정애 권사의 딸, 제14교구) / 31일(토) 14:00 삼정장리교회(전 720-7570)
9. 최준준(김정숙 집사의 아들, 제15교구)와 박정애(박정근 씨의 딸) / 31일(토) 14:00 남서유배당에서 사귀어올
10. 유원철(구수영 성도, 김영이 성도의 아들)과 노수현(노수태 집사, 김현숙 집사의 딸, 제14교구) / 31일(토) 15:30 한국과학기술대학원 편입

● 별 세

1. 임철석 성도(김복학 집사 부친, 박진혜 집사 사부, 제4교구 영동2구역) / 14일 별세.
2. 송원호 권사(권태문 성도 부친, 제16교구 평촌7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주차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교회 건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 차 앞부분이 건물벽을 향하도록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중보의 창

① 김창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잔치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③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모든 다 스미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간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⑦ 매 주 수요일예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지역장 훈련과 수요일예배 후 진행되는 남성도구역장훈련을 통해 교구인원들이 힘있게 재충전하여 각구역이 말발과 정성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⑧ 교회의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되어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룩하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젊은이들의 신앙이 확신하고 본토에게 세워지기를 이들을 통해 교회의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⑨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다종 주일)을 준비하면서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학습 및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세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11월 1일 예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소로리노 박현주
(별안간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나의 영원한 신
· 이 세상 하하고
· 정경하게 하는 생이
· 내 찬양하는 길

- ◆ 3부예배
목관 앙상블
(합창부(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평화의 기도
·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 갈보리산 위에

- ◆ 4부예배
목관 앙상블
(합창부(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평화의 기도
·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 갈보리산 위에

-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조문한 목사

- 원로목사 김창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훈, 김승현,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정현준, 김재철, 이순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한, 조진수, 이순수, 차병준, 김경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순학, 정재호, 박철호
- 합창단장 이종훈
- 선교사 이준근, 안석필, 김경태
- 교육목사 이준경
- 원로전도사 이두환
- 여전도사 최숙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대, 김진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숙, 송창자, 신종자, 유민숙, 오정숙, 오민희, 최영자, 안현숙, 박종화, 김경숙, 김복순
- 교정전도사 박양태
- 교육전도사 박진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식, 김경현, 조재민, 최진우, 최영우, 이우환
- 신학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요점